국경없는 교육가회 연간보고서

EDUCATORS WITHOUT BORDERS

ANNUAL REPORT
2015

EWB
Educators Without Borders

(사)국경없는 교육가회 2015 연간보고서

발행 (사)국경없는 교육가회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59길 23 삼모스포렉스 1014호
전화 02-885-6422

이메일 ewb@ewb.or.kr
웹사이트 www.ewb.or.kr

발행일 2016년 3월
발행인 김기석

© 2016 Educators Without Borders
All rights reserved.

목 차

I. 연간보고서 발간사 ····· 1

II. 활동보고 ····· 2

1. 부르키나 파소 '갚아(GAPA)'사업 ····· 2

가) 광명시 세종문해센터 개관식 ····· 2

나) EWB GAPA 사업지 상·하반기 모니터링 평가 방문 ····· 3

다) 기고글 '부르키나 파소에 심어질 가나안 정신' ····· 8

2. 아프리카 교육리더십 역량강화사업 ····· 10

3. 세네갈 과학수학교육 역량강화사업 ····· 12

4. 에티오피아 극빈 여학생 역량강화사업 타당성 조사 ····· 15

5. 케냐 메루지역 도서기증 전달식 ····· 18

6. 후속세대 양성사업 ····· 20

가)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2015 ····· 20

나) 국제화 특성화 학교 하계 교원연수 ····· 25

III. EWB 소식 ····· 28

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회담 참가 ····· 28

2. 부르키나 파소 명예영사관 개관식 및 EWB 창립 8 주년 기념식 ·· 30

3. 2015 세계평생학습포럼 참가 ····· 33

4. 2015 여성 할례 근절 국제 컨퍼런스 참가 ····· 34

5. '제 1 회 과학기술혁신과 개발 국제 컨퍼런스' 참가 ····· 37

6. 부르키나 파소 간사 파견 ····· 39

7. EWB 간사 가나안 농군학교 체험 ····· 40

8. 부르키나 파소 일가가나안회관(ICC) 건립 모금 마라톤 완주····· 42

9. 부르키나 파소 여성 자립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목표 달성····· 43

IV. 2015 년 정산 세입 제출 보고 ····· 44

V. EWB 소개 및 후원 안내 ····· 46

VI. 2015 년 후원자 명단····· 47

I. 연간보고서 발간사

2015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전 세계의 공동 목표로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주도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종료되고, 향후 15년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었습니다. 새로운 개발목표 달성과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가 적정한지, 사업의 효과성은 높은지, 효율적 추진체제를 위하여 어떠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양한 수준의 기관과 개인들이 참여한 글로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WB는 2007년 창립 이후 아홉 번째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교육을 통한 빈곤퇴치'라는 목표를 위해 교육개발협력 분야에서 차근차근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EWB의 발걸음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단년도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GAPA in Burkina Faso 사업은 이제 지속적으로 자력 운영이 가능한 모델로의 이행 과정 중에 있으며, 광명시 평생학습원을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기관과의 협력으로써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전문가 단체로서 개발컨설팅에 주력하여 UNDP 지원 아프리카 3개국 동료평가 사업, 세네갈과 에티오피아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였고,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와 교원 연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금년 사업과 연구를 위해 일한 사무국 모든 분과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이러한 노력과 변함없는 지지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교육을 통한 빈곤퇴치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우리 교육가들이 무한히 자랑스럽습니다.

사단법인 국경없는 교육가회
대표 김기석

II. 활동보고

1. 부르키나 파소 '갚아(GAPA: Global Alliance for Poverty Alleviation)' 사업

가) 광명시 세종문해센터 개관식

지난 3월 4일에는 부르키나 파소, 사바(Saaba) 지역에 새로 건립된 세종문해교육센터의 개관식이 열렸다. 세종문해센터는 2014년 한 해 동안 광명시 평생학습원의 지원을 통해 총 4개 지역에 5개의 센터가 지어졌다.

세종문해센터의 개관과 2015년도 문해수업의 개강을 축하하기 위해 김기석 대표, 박수정 팀장, 이다영, 신주용 간사가 함께 자리하였다. 개관식에는 사단법인 굿파머스(Good Farmers)의 장경국 회장도 함께 참석하였다. 세종문해센터의 완공과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사바(Saaba)시 카보레 조지안 시장뿐만 아니라, 마을 지역 대표자, 문해교육 교사, 마을지역 관리기관 대표자, 소액대출 관리자와 협력기관인 비형식교육진흥협회(APENF)의 아나톨(Anatole) 회장과 직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마을에서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주민 모두 함께 모여 전통 춤과 노래로 내빈들을 환영해주었다.

춤과 노래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마을 주민들

불어와 모레어(Moore)로 감사 연설 발표 중인 마을 담당자 엘리자베스(Elisabeth)

마을 주민들로부터 지역 전통 옷을 선물 받은 김기석 대표

사바지역 마을관리자인 엘리자베스(Elisabeth)는 현지 토착어인 모레어(Moore)와 불어로 세종문해센터 건립 지원과 완공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다. 뜨거운 햇살과 모래바람, 비 등 궂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 공부하기 어려웠는데, 튼튼하게 지어진 문해센터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히 공부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였다. 김기석 대표는 단순히 문해센터를 지어 여는 것이 아니라 부르키나 파소의, 사바 지역 주민들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행복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사바 시장인 카보레 조지안은 사바지역에서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여성들을 발견하였고 이것은 엄청난 발전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한국에 돌리며, 세종문해센터를 거점으로 사바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많은 발전과 번영이 함께 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후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문구를 영어, 불어, 모레어로 적어 배움에 대한 열의를 한번 더 다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는 것이 힘이다'를 한글, 영어, 불어,
모레어로 적어 함께 뜻을 공유

세종문해센터 앞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나) EWB GAPA 사업지 상·하반기 모니터링 평가 방문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GAPA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를 방문하여 7월 5일부터 21일까지 상반기 모니터링을,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하반기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김기석 대표와 박수정 팀장, 김연지 간사, 유희숙 간사가 출국하였으며 현지에서 근무 중인 국경없는 교육가회 신주용 간사와 백광순 간사 그리고 APENF의 코디네이터인 목타(Moctar)가 함께 마을 방문을 진행했다.

상반기 모니터링의 첫 일정으로 7월 6일에는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APENF가 한 자리에 모여 실무자 회의를 진행했다. 사바 지역에 건립될 비형식교육교원연수센터(Centre de Formation)와 일가가나안회관(Ilga Canaan Center; ICC) 건립에 관한 진행상황과 GAPA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업 진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으며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조만간 완성된 센터를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했다. 또한 이번 상반기 모니터링 기간에는 특별히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트디부아르 사무소 김상철 사무소장과 조성환 인턴, 현지 직원인 마마두(Mamadou)가 사업 적절성 모니터링 평가를 위해 부르키나 파소를 방문하였다. 김상철 사무소장

은 "부르키나 파소가 옆 나라지만 방문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만나게 되어 반갑고 마을을 직접 돌아보며 GAPA 사업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하였다.

기술직업능력훈련을 통해 수혜자들이 만든 꿀을 들고 있는
김기석 대표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트디부아르 사무소 김상철 소장

둘째 날에는 사바(Saaba)마을을 방문하였다. 마을의 소액대출 수혜자 중 한 분인 뎅툼다 엔젤(Dengtumda Angel)은 소액대출을 통해 삶이 변화되었으며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벌면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남편도 자신을 이해해주며 가정 내 싸움이 줄어드는 등의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후 가족계획에 관한 주제로 마을 주민 인식 개선 연극을 관람하였다. 연극은 부인이 교육받은 것에 대해 칭찬하고 이를 잘 이해해주는 남편과 부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 펼치는 남편을 대조하는 구성으로 쉽지만 재미있게 전달되었다. 올바른 피임방법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가정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연극 중에도 그림을 통해 주민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그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었다.

공사 시작을 위해 벽돌을 쌓아둔
비형식교육교원연수센터 부지

사바 마을 사람들의 환영인사

연극이 진행중인 모습

다음날에는 레오(Leo)지역으로 이동해 워루(Worou)마을을 방문하였다. 기술훈련(FTS)교육을 통해 만든 제품들을 미리 전시도 하고 출장팀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수혜자인 마리암(Mariam)씨는 소액대출을 통해서 단순히 돈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활동과 자금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배움이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실생활 적용을 통해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문해교육을 통해 글을 배워서 '워루'라는 마을 표지판을 읽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각자의 삶에 변화가 있고 그 변화를 기뻐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워루 마을 방문을 마쳤다.

같은 날, 레오 지역의 또 다른 마을인 완(Wan)을 방문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활기찬 분위기로 출장팀을 맞이하였다. 함께 모여 춤을 추며 방문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다. 완 마을의 코디네이터 파스텔(Pastel)은 '어서오세요'를 한국말로 하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문해교육, 기술교육, 경제교육, 소액대출은 마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하며 많은 기여에 감사를 표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트디부아르 사무소 김상철 사무소장은 직접 현장의 모습을 보니 감격스럽고 발전된 모습을 보고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많은 분들의 감사인사와 인사말을 전달한 후 문해교육, 소액대출 관련 주제로 연극을 관람하였다. 한 남편이 문해교육을 신청을 하려는 부인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부인은 멀리 있는 자녀로부터 편지가 왔는데도 이를 읽지 못한다. 부인은 편지를 읽기 위해 문해교육을 통해서 글을 배운 다른 가정의 여성을 불러 도움을 요청한다. 교육과 소액대출을 통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표현해내고, 좋은 예들을 통해서 끝내 조언을 받아들이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 문해교육과 소액대출의 효과를 적절하게 표현한 연극이었다. 이 마을의 연극은 마을 여성들의 실감나는 연기를 통해 재미와 효과를 더했다. 연극을 보는 남성들도 연극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는지 웃기도 하고 진지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연극이 끝난 후 기술훈련(FTS)을 통해 수혜자들이 만든 제품들을 둘러보았다. 비누와 여러 가지 식품들까지 다양한 것을 전시해 보였다. 마을 방문을 마칠 즈음, 마을 족장님께서 출장팀에게 닭 5마리를 선물하기도 하셨다. 마을 방문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기쁘고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며 마을 방문을 마무리하였다.

기술훈련(FTS)를 통해 만든 비누

소액대출의 활동으로 기르고 있는 가축들과 단체사진

모두가 모여 인사를 나누는 모습

즐겁게 연극을 관람하는 마을 사람들

7월 13일과 14일에는 GAPA 사업 관련 모든 참여기관, 파트너들이 모이는 상반기 공동협의회가 진행되었다. 마을 관리자들과 APENF 담당 직원들이 다같이 참석하여 문해교육, 기술교육, 소액대출의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사업과 보고 진행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12월 8일과 9일에 개최된 하반기 공동협의회는 한국국제협력단 다년도 지원사업 종료년도로서 특히나 의미가 컸다. 사업을 추진해온지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까지의 일궈낸 성과는 무엇인지, 앞으로 자력으로 운영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두 기관 간 깊은 토론이 오고 갔다. 공동협의회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파트너가 되도록 다시 한 번 맡은 역할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교육부 장관과의 만남

사무총장과의 만남

하반기 방문 기간 동안에는 협력기관 및 현지 이해관계자/기관과의 협의미팅이 주로 이루어졌다. 김기석 대표를 비롯한 출장팀은 부르키나 파소 기초문해교육부를 방문, 교육부 장관과 사무총장을 만나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부 장관은 그간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교육적 기여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전 국가적으로 비형식교육을 확장하고 진지하게 실행에 옮겨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지난 5월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 만날 기회를 놓쳐서 아쉽다며,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가나와 같은 경제 수준에서 빠른 시간에 세계 상위권 경제국가로 발전한 한국의 개발 경험에 크게 감탄했다고 전했다. 현재 부르키나 파소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적 문해율(45-46%, UN 자료 참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약속하겠다며 발전을 위한 의지를 함께 다졌다. 또한 교육부 사무총장은 국경없는 교육가회와의 향후 더욱 튼튼한 파트너십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현지에서 건설과 유통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에서도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GAPA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두 기관이 부르키나 파소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를 가졌다. 출장팀은 현지 업무 및 중간/결과 보고 관련 업무와 수 차례의 실무회의를 수행하고 일정을 마무리를 하며 출국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부르키나 파소에서 추진중인 사업 진행 상황과 지원 사항 및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양 기관의 결의를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다) 기고글 '부르키나 파소에 심어질 가나안 정신'

지난 해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일가재단에서 부르키나 파소에 일가가나안회관(Ilga Canaan Center; ICC)을 건립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도 해외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르키나 파소에서 양계지원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알기 위해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중 기회가 되어 김기석 대표와 박수정 팀장과 함께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르키나 파소 현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장경국 굿파머스 회장

출국에 앞서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심하게 몸살을 앓게 되어 주변에서 아프리카 출장을 만류하는 상황 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며칠 간 현장을 돌아보며 그 동안 NGO 활동으로 방문하였던 여러 나라 중에서도 이곳이 가장 열악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외곽으로 이동하는 도로변의 가옥들은 흙을 말려 지어진 형태로 이를 보며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 주택의 70퍼센트 이상이 서구인의 시각에서 정상적인 주택이 아니었다'는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번영이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감에 사로잡혀 감사를 잊어버린 채 불만이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이 안타깝고 마음 아파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안타까움은 어린 나이지만 현지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EWB 간사들의 섬김으로 인해 녹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경험을 나눈다면 충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들며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현지를 돌아보며 일본 식민지 시절 열악했던 농촌 환경에서 고구마 재배와 저장 방법을 통해 민족의 정신을 흔들어 일깨우셨던 일가 김용기 선생님의 모범이 이곳 부르키나 파소에서 일가 가나안 회관을 중심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며 다시 이곳을 찾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경국 회장과 김기석 대표, 박수정 팀장, 이다영 간사

현지 사료 배합 상태 직접 확인

현지 양계장을 방문

현재 부르키나 파소에서는 외국계 회사에 근무 시 급여가 $80 정도 이며, 산란계 3,500 수를 키우면 커다란 부자로 불립니다. EWB GAPA 사업의 소액대출을 통해 병아리 20~30 수를 지원받아 키우는 양계 농가를 방문하였을 때 병아리 한 마리로부터 한화 5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현하는 주민의 모습에서 절실히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르키나 파소의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1.3배 크기로 대부분 평야지대이나 강수량이 부족하고 관개시설이 미비하여 식량의 자급자족이 되지 않아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농가에서 소규모로 시작하여 우선 300수 규모의 작은 종계장과 부화장으로 시작하여 현재 EWB에서 시행 중인 소액대출사업과 연계를 통해 앞으로 일가가나안회관의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며 병아리에서 돼지로, 아프리카 전통의 목축산업 개량으로 나아가 마을 단위의 경종농업인 옥수수, 콩, 고구마 재배까지 영역이 확장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그 동안 EWB에서 전개한 빈곤퇴치 사업의 결실로 척박한 이곳이 가능성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비옥한 옥토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바탕 위에 일가재단과 굿파머스가 협력하여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여 부르키나 파소에 식량 자급자족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귀한 일정이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양계지원사업 타당성 조사 기간 중 수고로 섬기며 감동을 준 부르키나 파소 현지에 파견 중인 EWB의 이다영 간사와 신주용 간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Good Farmers 굿파머스

굿파머스(Good Farmers)는 대한민국 최초로 농민, 국제개발 전문가, 농업관련 기업가, 전국 여러 대학의 농업분야 교수, 일반 시민 등이 모인 국제순수민간단체로 대한민국 농림.축산.수산.식품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개발도상국 빈민층과 국내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자활과 자립을 위하여 개발협력 지원 사업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전화번호: 02-589-5523 * 홈페이지: www.good-farmers.org

2. 아프리카 교육리더십 역량강화 사업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재정 지원을 받아 2012년부터 아프리카교육개발협의회(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Africa; ADEA)와 함께 아프리카 3 개국 교육부 정책수행 역량에 대한 교육전문가 동료평가(Peer Review)를 수행하고 있다. 동료평가 사업은 아프리카교육개발협의회와의 협력으로 아프리카 교육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참여국의 자체 국내교육전문가 팀과 다양한 국가의 교육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각 팀이 참여국의 교육 정책을 진단·평가한다. 각 팀의 평가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참여국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총 5개의 사업 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현재 콩고공화국, 부르키나 파소, 앙골라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콩고 공화국과 부르키나 파소는 국내·외 전문가 팀의 평가를 모두 마치고 평가 결과를 정치·정책적으로 최종 검증하는 단계이다.

박수정 팀장과 김연지 간사, 신주용 간사는 동료평가(Peer Review)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부르키나 파소를 방문, 정책 타당성 검증(Political Validation) 워크숍에 참가했다. 이번 워크숍은 협력 파트너인 아프리카교육개발협의회(ADEA)와 부르키나 파소 기초문해교육부(MENA)의 주최로 7월 20일~21일 양일 간 쿠두구(Koudougou)에서 열렸다.

발표하는 박수정 팀장(우)과 교육부 사무총장(중앙)과 이브라히마 박사(좌)

현지 기초문해교육부(MENA)를 대표하여 노라오고 자바(Noraogo Innocent ZABA)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맞이하였다. 아프리카교육개발협의회의 이브라히마 바-랄리아(Ibrahima Bah-Lalya) 진행 담당자는 부르키나 파소에서의 동료평가 추진 과정 및 배경을 소개하며 UNDP, 한국정부와 EWB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수정 팀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교육을 중시했던 한국인들의 예를 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후속세대를 위한 더 나은 교육정책과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이번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주기를 독려했다. 워크숍에는 교육부 담당자 및 교육 전문가

를 비롯해 부르키나 파소 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국내·외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도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1)커리큘럼, 2)형식(formal)-비형식(non-formal) 교육의 연계, 3)직업기술 (preprofessional) 훈련의 총 3가지 범주에 대한 평가와 정책 조언이 이루어졌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이 평가한 교육 정책의 보고 내용을 부르키나 파소 정부가 적극 반영하여 실제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현재 부르키나 파소와 콩고 공화국에서의 동료 평가 사업을 마무리 중이며, 오는 2016년 6월 중 교육정책 동료평가 결과 보고서가 영어와 불어 버전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4. 세네갈 과학수학교육 역량강화사업 실행

김주훈 교육개발협력 단장과 박수정 팀장 그리고 유희숙 간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컴퓨터 교실 운영을 통한 세네갈 학생의 수학과 과학기술 학습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위해 세네갈 다카르를 방문하였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이어 올해도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지 교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는 실제 대학의 과학실험실 및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수학, 과학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교원연수가 진행된 세네갈 GSTS BAAL 학교

교원연수 진행을 위해 영국(TESSA; Teacher Education in Sub-Saharan Africa), 프랑스(Apreli@; Association pour la Promotion des Resources Educatives Livres Africaines), 토고, 모리타니 등 곳곳에서 전문가들이 파트너로 함께 참가하였다. 출장 일정 동안 진행된 교원연수에서 김주훈 단장은 '과학교육의 교수 및 학습법(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in Science Education: Teacher's Suggestions for Methods of Improving Science Education)'라는 주제로 발표 하였다. 한국창의교육, 학생중심의 활동 커리큘럼 그리고 모범사례 공유 및 발표를 통해 특히나 세네갈 교사들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교원연수에서는 태블릿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학습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수 참가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교육방법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리고 작년 연수와는 다르게 올해는 교사들 중에서도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여 PRI(Personnes-Resources Internes)로 지정하고 그들만을 위한 사전 집중연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PRI(Personnes-Resources Internes)세션 진행

연수를 진행하는 강사들

교원연수 개회식에는 전 세네갈 교육부 장관, 교육부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유관기관에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기석 대표는 영상을 통해 세네갈 현지 파트너들에게 인사말을 전하였다. 집중적인 교원연수를 마치고 폐회식에 참석하여 수료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많은 것을 배웠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좋은 환경에서 연수를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달하였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보며 세네갈 교육에 대한 밝은 미래를 희망하였다.

교원연수를 마치고 참가자와 강사들과 단체사진

출장 일정 동안 교원연수 이외에도 세네갈 공립 및 사립학교를 방문하였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학비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었으며 정부의 지원도 상대적으로 공립학교에 많은 지원이 있는 편이었다. 사립학교 중 한 곳은 컴퓨터실이 따로 있으나 사용이 빈번하지는 않은 듯 하였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설립된 공립학교의 컴퓨터실은 파견된 봉사단원을 통해 컴퓨터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수업을 참관하며 이번 학교 방문을 통해 세네갈 교육의 질 향상에 무엇이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ECOMIXTE' 학교의 교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다른 활동인 '수학과목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GSTS BAAL 학교 학생들의 현장학습도 이루어졌다. 학생들에게 보다 실제적이고 넓은 범위에서 수학,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대학 캠퍼스 및 관련 기관 방문을 실시했다. 다카르 레오폴드 생고르 국제공항(Dakar Leopold Sedar Senghor International Airport), 과학축제 현장 및 다카르 안타 디오프 대학교(Université Cheikh Anta Diop de Dakar, UCAD) 과학기술 단과대학을 방문하며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현장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 과학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을 선택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한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설명을 듣는 학생들

공항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우는 학생들

이외에도 세네갈 교육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앞으로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주세네갈 한국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세네갈 교육 현장을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해보며 출장을 마무리하였다.

3. 에티오피아 극빈 여학생 역량강화사업 타당성 조사

김기석 대표와 박수정 협력사업부 팀장은 1월 7일부터 21일까지 참전용사후손가족 여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를 위해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로 떠났다.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삼성꿈장학재단의 재정적 지원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GAPA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에서 한국을 위해 용감히 맞서 싸웠던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로 한국인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감사한 나라이다. 실제로 전쟁 동안 5차에 걸쳐 군을 파견하여 강원 화천, 산양리, 문둥리 금화 등의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으며 전쟁이 끝난 후 에티오피아로 돌아간 용사들을 위한 '한국인 마을(Korean Safer)'이 지어졌다. 국가보훈처와 강원도 춘천시가 참전용사기념공원과 기념탑을 건립하였으며 참전용사협회가 세워졌고 화천군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현재 에티오피아에 거주 중인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참전용사후손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출장기간 동안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참전용사기념공원을 방문하여 추모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6.25 전쟁 참전용사회관 방문

실제 참전 용사(사진)와 가족들

출장팀은 아디스 아바바 내 위치한 초·중등학교 및 직업기술훈련학교(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10곳을 방문하였고, 학교 직원 및 교사 2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교내 인터뷰뿐만 아니라 직접 참전용사후손 가족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총

42명의 여학생들과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방문했던 참전용사후손 가족들의 집에는 늠름한 모습으로 군복을 입고 있는 할아버지(실제 참전용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64년 전 실제 입고 싸웠던 군복을 꺼내 직접 보여주기도 하였다. 참전용사 후손 2세대인 부모들과 3세대 후손인 10대 여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깊숙이 살펴보고자 했다. 조사 결과 여학생들의 학업 참여율과 성취도에서는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으나, 여전히 가사노동과 교복, 학용품, 참고서 등이 부족한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학생들은 모두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의사, 기술자 등 큰 꿈을 꾸고 공부를 계속 하길 원하나 사회·경제·문화적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실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학에 진학해도 끝까지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하는 비율이 높으며 대학원 진학 비율은 10% 가량에 그친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직업기술훈련학교에 진학하지만, 사회적으로 직업기술훈련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산업시장에 맞는 훈련된 인재 양성을 위해 최근 학생들에게 기술훈련을 적극 권장하고 다양한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경없는 교육가회 역시 여학생들의 학업 지원뿐 아니라, 더 나아가 궁극적 자립역량강화의 해법으로 자아적성 이해와 직업기술훈련 교육에서 찾고자 한다.

타당성 조사를 위해 학교 방문

여학생 대상 기초설문조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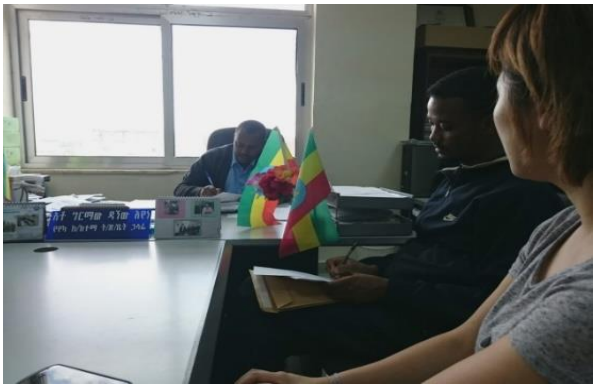
심층면담을 진행한 여학생들과 함께

2015년 1월 시행한 1차 현지 조사를 통해 에티오피아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과 진로에 대한 탐색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직업과 진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이를 위해 박수정 팀장과 김연지 간사는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현지로 떠났다. 2차 현지 조사에서는 국제교육협력사업에 대한 현지 정부의 최종 검토와 승인을 구하고 현지 사업 협력기관인 'Forum

for African Women Educationalists; 이하 FAWE' 에티오피아 지부와 커리큘럼 최종 확정 및 참여 학교 최종 선정 등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 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확정하였다.

이를 위해 출장팀은 최종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해 예카(Yeka)와 굴렐레(Gulele)지역 교육부로부터 학교 후보지 5곳을 추천 받아 각 학교를 방문하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세부사항을 전달 및 협력의지를 확인하였고, 학교 선정을 위한 학교 정보를 수집하였다.

학교 방문 인터뷰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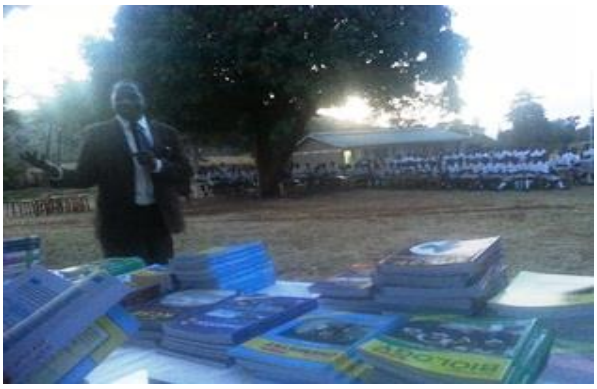

Yeka 지역 교육부 방문 사진

위치, 유사 활동 운영 경험, 운영역량 및 의지, 학생-교사 비율, 상담전문교사의 확보여부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 결과, 예카 지역의 테스파 버한 학교(Tesfa Birhan School)와 굴렐레 지역의 엔토토 암바 중등학교(Entoto Amba Secondary School)가 최종 대상학교로 선정되었다. 각 지역 교육부와 재정부에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 외에도 조사 기간 동안 에티오피아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산하의 비영리기관 국제개발협력 사업 담당 기관인 CSA(Charities and Societies Agency), 에티오피아 상업은행(Commercial Bank of Ethiopia)을 방문하여 사업 수행과 승인 절차에 대한 협조 및 조언을 구하였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 하는 이번 교육사업 발굴조사 프로젝트는 2015년 8월 종료되며, 글로벌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되어 9월부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5. 케냐 메루지역 도서기증 전달식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케냐 메루지역에 위치한 비영리기관인 빌리지 트러스트 (The Village Trust; TVT)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케냐로 확장했다. 빈곤퇴치운동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NGO단체들과 협력하는 특유의 방식으로, 모든 과목의 도서 제공과 지도,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케냐 시골학교의 교육 지원을 확대했다. 케냐의 시골학교들은 열악한 기반시설에서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은 교사의 부족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있다. 케냐의 초등교육이 무료이지만 교재는 부모들이 직접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시골지역의 부모들에게 자녀를 위해 책을 구입하는 것은 빠듯한 주머니 사정 속에서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로 여겨지지 않는다. 반면에 학교는 각 과목에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며, 학생들은 참고할 책 없이 교사의 강의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TVT와 EWB 관계자가 방문한 일부 학교들 중에는 300명의 어린 학생들이 단 한 권의 책을 공유하여 공부해야 하는 곳도 있었다.



학생들에게 전달될 책들

책을 보며 기뻐하는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전달식

2014년부터 2015년 한 해 동안, EWB는 케냐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9곳에 도서를 지원할 수 있었다. 네 곳의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주간학교로 교육시설에 관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다. 라씨아뚜리우(Laciathuriu) 주간 중등학교, 아타와나(Athwana) 주간 중등학교, 아탐부(Athambu) 주간 중등학교, 카일루타(Kailutha) 주간 중등학교, 우루(Urru) 주간 중등학교, 유루루(Yururu) 초등학교, 우링구(Uringu) 여자 중등학교와 키아무리(Kiamuri) 중등학교가 EWB의 도서 기

증의 혜택을 받았다.

EWB는 이 학교들에 이어진 여러 지원의 감사에 감명을 받았다. 마음 든든한 파트너십을 통해 TVT와 EWB는 국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회를 통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마을 개발을 기반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의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교육기관의 관리부분에서 지역사회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돕기 위함이다.

2월 26일, 도서기증은 전달은 TVT의 사라 킬레미(Sarah Kilemi) 박사와 EWB 케냐지부의 박상영 지부장에 의해 진행되었다. 지역지도자, 학부모회, 교사들이 함께 자리했다. 학생들은 그들의 중등교육이 마친 후에도 미래의 학업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박상영 케냐지부장은 학업을 잘 수행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확보하기 위해 TVT와 한국의 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학생들은 그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학업에 전념할 것을 약속했다. TVT와 EWB는 교육을 통해 마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교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6. 후속세대 양성사업

가)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2015

지난 6월 22일~24일, 2박 3일 간 국경없는 교육가회에서 주최한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2015"가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차세대 교육가들에게 국제사회에서의 교육 부문 협력 및 지원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지식을 습득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교육개발협력의 현장감각을 익히고 지구촌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에는 '국제교육개발협력이란' 주제로 바보의 나눔 민경일 사무총장의 강의와 함께 캠프가 시작되었다.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이론을 바탕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조별시간을 통해 첫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어색함을 풀고 서로를 점차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2015 첫째 날

입학식 진행을 맡은 전일구 팀장

강의 중인 바보의 나눔 민경일 사무총장

이후 캠프 마지막 날 진행될 글로벌교육개발협력 프로그램 발표회를 위해 '그 나라에 대해 알려줘! 국가별 정보제공 활동' 시간이 계속되었다. 국가별 정보제공 활동에는 멕시코, 캄보디아, 부르키나 파소 3개국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마치 그 나라에 있는 듯 강의실을 꾸며 생동감을 더했다. 첫째 날의 마무리는 ICE Breaking으로 함께했다. 다양한 게임을 통해 서로 웃으며 첫째 날의 긴장감을 풀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조별끼리 인사 나누는 모습

국가별 정보제공 활동 - 멕시코 강의실

국가별 정보제공 활동 - 부르키나 파소 강의실

국가별 정보제공 활동 - 캄보디아 강의실

몸으로 말해요 게임 중인 모습

신나는 빙고게임 중인 모습

캠프 둘째 날,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실제: 정책 관점'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국제대학원 강규원 교수의 첫 강의가 시작되었다. 정책관점에서 바라본 국제교육개발협력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이 분야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강의가 끝난 후 글로벌 교육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조별 토의가 진행되었다. 첫째 날, 국가별 정보제공 활동을 통해 각 조마다 나라를 선정하였고 발표에 대해 의논을 하며 차근차근 준비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강의 중인 고려대 국제대학원 강규원 교수

조별 토의가 한창인 참가자들

맛있는 점심 식사 후 나른한 몸을 체조로 풀고 다음으로 국경없는 교육가회 협력사업부 박수정 팀장의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실제: 시민사회기관 관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실제로 시민사회기관에서 국제교육개발협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프로젝트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둘째 날 마지막 강의는 한국외대 아프리카 연구소 베텔(Bethel) 연구원의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실제: 협력파트너국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외국인이지만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유익한 강의를 진행해주었다.

맛있는 점심 식사

강의 중인 박수정 팀장

강의 중인 한국외대 아프리카연구소
베텔(Bethel) 연구원

이후 퀴즈 시간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캠프 후속활동 안내를 통해 이후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며 캠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강의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글로벌 교육 개발협력 프로그램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집중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잠시 모두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담력체험을 하며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며 이후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캠프 둘째 날 밤이 지나가며 벌써 다가온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다.

신나는 퀴즈 시간

맛있는 간식 시간

캠프 마지막 날에는 '현장 실무자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며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했던 분들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던 시간이었다. 말라위, 탄자니아, 부르키나 파소, 마다가스카르에서 활동하고 왔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제 어떤 업무를 진행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향후 진로 계획 등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고민들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후 각 조의 발표가 이어졌다. 6개의 조들이 각각 열심히 만든 프로그램들을 모든 참가자와 공유하며 다시 한 번 국제교육개발협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참가자들의 발표 이후 김기석 대표의 평이 이어졌다.

현장 실무자 토크콘서트 진행

조별발표 중인 참가자

조별발표에 대한 김기석 대표의 평

모든 프로그램을 마친 후 참자가들에게 "국경없는 청년 교육가"수료증을 수여하고 단체사진을 찍으며 2박 3일간의 캠프는 마무리되었다.

청년교육가 캠프 참가자 및 스태프 단체사진

나) 국제화 특성화 학교 하계 교원연수

7월 21일-24일, 4일간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인천 작전고등학교에서 국제화 자율정책추진 연수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강연과 실습을 통하여 국제교육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세계적 흐름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나아갈 방향을 학교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다.

교원연수 진행 장소인 작전고등학교

7월 21일 교원연수의 첫째 날에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의 정일용 원장이 '한국의 교육과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 과거 70년 동안 교육이 한국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국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학교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어서 충남대학교 박환보 교수의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이해' 강의가 이어졌고 이 강의를 통해 처음 국제교육개발협력을 접한 교사들은 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2일 둘째 날에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의 이하늬 간사가 '국제개발협력의 기관과 국제동향'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 시간에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제와 최근 이슈에 대해서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계시민학교추진반의 송지은 담당관이 '세계교육포럼과 교육의제'에 대해 강의하며 5월 송도 국제교육포럼에서 논의했던 의제와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소개해 주었다.

'한국의 교육과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강의하는 정일용 원장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이해'에 대해 강의하는
박환보 교수

'국제개발협력의 기관과 국제동향'에 대해
강의하는 이하늬 간사

'세계교육포럼과 교육의제'에 대해 강의하는
송지은 담당관

23일 셋째 날에는,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박수정 팀장이 EWB의 사업 사례를 들며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사업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이어서 서울국제고등학교의 정애경 교사가 '국제교육개발협력에서의 교원참여'라는 주제로 교사들이 개발협력의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실습의 시간을 가졌다.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사업 사례'에 대해
강의하는 박수정 팀장

'국제교육개발협력에서의 교원참여'에 대해
강의하는 정애경 교사

'브릿지 프로그램' 실습에 참여중인 교사들

강의 중인 박애경 교사

24일 연수의 마지막 날에는, 서울 숭신초등학교의 박애경 교사가 '현직교사가 전하는 국제교육개발협력 교육의 학교 적용 사례와 실습'에 대한 강의를 했다. 실제로 학교에서 국제개발협력 교육을 진행했을 때의 사례를 배우고 간단한 수업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마무리로 모든 교원연수의 프로그램을 마쳤다.

브릿지를 완성한 교사들

III. EWB 소식

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회담 참가

2015년 2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라오스 비엔티엔의 비형식교육개발센터(Non-Formal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NFEDC)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과 교육에 관한 지역회담(Regional consultations on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김기석 대표와 박수정 팀장이 참가하였다. 이 행사는 아시아-남태평양 기초·성인교육협회(The Asia South Pacific Association for Basic and Adult Education, ASPBAE), 독일 성인교육협회(Deutschen Volkshochschul-Verbandes; DVV International)와 라오스 교육부 내 비형식 교육부서의 협력으로 개최되었다.

개회식에는 라오스 교육체육부 부장관인 리투 부아파오(Lytou Bouapao), 주라오스 독일대사 마이클 그라우(Michael Grau), 아시아-남태평양 기초·성인교육협회장인 호세 게바라(Jose Guevara)와 사무총장인 마리아 칸(Maria Khan), 그리고 독일성인교육협회 지역 책임자인 힌젠(Hinzen Heribert) 교수가 자리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비형식 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지원사업 사례 발표, 강의 및 토론 세션이 진행되었다. 지난 2014년 11월 평생학습 도시로 잘 알려진 광명시 평생학습원을 방문,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자 한 라오스 비형식교육부는 방문연수 결과를 발표하여 참가자들과 공유하기도 하였다.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

교육지원사업 사례 발표

다양한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 사례 발표 세션에서 김기석 대표와 박수정 팀장은 부르키나 파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파(GAPA)사업을 소개하였다. 가파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극빈층 문맹농민 여성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직업기술교육과 더불어 소액대출을 함께 지원해 교육을 통한 자립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세종문해상을 수상하며 그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박수정 팀장은 비형식교육 지원을 통한 부르키나 파소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총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수혜자와 지역사회 단계에서의 지원, 협력기관 담당자 및 중간 관리 관계자 등 경영단계에서의 지원, 교육제도와 정책 등

을 담당하는 정부 단계에서의 지원이다. 각 단계마다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협력을 통한 통합적 빈곤퇴치 운동으로서 그 효과를 자세히 알릴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필리핀, 뉴질랜드, 인도, 피지,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 사례, 학교 기반, 지역사회 기반 기후변화교육 사례, 시민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사례 등 발표가 이어졌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비형식교육회담 참가자 단체사진

전통 문화를 배우는 시간

행사 중에는 라오스 전통 문화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전통 라오스 춤을 배우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 부르키나 파소 명예영사관 개관식 및 EWB 창립 8 주년 기념식

5월 15일, 서울 서초 외교센터에서 주한 부르키나 파소 명예영사관 개관식과 국경없는 교육가회 창립 8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김기석 대표는 그 동안의 부르키나 파소 교육발전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에는 기사 훈장을 서훈 받은 바 있으며, 지난 2014년에는 부르키나 파소 정부로부터 명예영사로 임명되었다. 명예영사란 본국에서 파견된 직무영사와는 달리 접수국(대한민국)에 있는 본국인 또는 그 국가의 국민 중에서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영사를 말한다.

부르키나 파소는 서부 아프리카의 내륙국으로, 국가명은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정부와 부르키나 파소 정부는 1961년 7월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수교 이래 일본에 상주 공관을 설치하여 주 일본 대사가 우리나라 외 대만과 싱가포르 등 4개국 대사를 겸임했다. 따라서 이번 주한 부르키나 파소 명예영사관 개관은 수교이래 54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에 영사관을 설치한다는 것에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이날 행사에는 프랑소와 오우비다(François Oubida) 주일 부르키나 파소 한국 겸무 대사를 비롯, 박윤준 평창 동계올림픽 국제국장, 유승필 주한 명예영사단 단장과 전혜정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윤희진 ㈜다비육종 회장,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 등의 축하객이 참석했다.

오우비다 대사는 "주한 부르키나 파소 명예영사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명예영사관이 주일 부르키나 파소 대사관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양국 간의 친선과 교류 증대를 위해 앞으로 다방면의 협력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오우비다 대사는 인사말에 이어 주한 부르키나 파소 명예영사관 현판을 직접 김기석 명예영사에게 전달하였다.

참석자 기념사진

인사말을 전하는 프랑소와 오우비다(François Oubida)
주일 부르키나 파소 한국 겸무 대사

현판 전달식을 가진 오우비다 대사와
김기석 명예영사

취임사를 전하는 김기석 명예영사

김기석 명예영사는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르키나 파소 영사관을 개관하게 돼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고, "부르키나 파소인들은 매우 부지런하고 국가 명에 걸맞게 정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며, 영사관의 미션(Mission)은 대한민국이 발전을 이룬 것처럼 부르키나 파소가 빈곤에서 벗어나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며 영사관 개관의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이어 박윤준 국제국장과 유승필 단장이 축사에서 "대한민국과 부르키나 파소가 수교를 맺은 지 50년이 지났음에도 대한민국에 영사관이 없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 부르키나 파소 영사관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사관 개관을 축하한다"고 전하며 "김기석 영사의 특별한 부르키나 파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오늘날 부르키나 파소 명예영사로 임명 되어 영사관 개관으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의 발전과 성공을 기원했다.

2부 순서로는 같은 날 창립 8주년을 맞는 EWB의 창립 8주년 기념식이 진행됐다. 2부 행사의 사회를 맡은 이향규 교수는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내디뎌온 EWB의 성장에 대한 기쁜 마음을 전했다.

전혜정 총장과 윤희진 회장은 "EWB 창립 8주년을 축하하고, 짧은 기간 동안 EWB의 발전은 한국 교육의 발전의 경험이며, 또 이 경험이 지식과 실천으로 연결되어 어려운 이웃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은 세계 지도자들이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앞으로 EWB의 발전을 위한 응원의 말을 전했다. 또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EWB와 한 마음으로 교육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한 국내·외 다양한 협력기관(부르키나 파소, 세네갈, 케냐, 에티오피아 등)에서 EWB 8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내왔다.

EWB 창립 8주년을 맞아 축사를 전하는
전혜정 총장과 윤희진 회장

명예영사관 개관을 축하하는 말을 전하는
박윤준 국제국장과 유승필 단장

다음으로 염춘옥 한국남정필회 명예회장의 EWB를 위한 현판 전달식이 있었고, EWB 사업을 위해 현지 사업장에 파견돼 헌신한 역대 스텝들을 소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후 오찬에서는 한국에서 공연 및 안무, 아프리카 춤 교육가로 활동 중인 부르키나 파소 출신 현대무용가 및 안무가 사노 임마뉴엘(Sanou Emmanuel)의 축하 공연과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과 조동성 핀란드 명예영사 등 내빈들의 덕담과 축하가 이어지며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직접 제작한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현판을 전달하는
염춘옥 한국난정필회 명예회장과
김영숙 한국 전각회 회장

소감을 전하는 (왼쪽에서부터) 이다영, 백광순, 정혜진
부르키나 파소 파견 간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르키나 파소
공연단의 축하공연

덕담을 나누는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과
조동성 명예영사

3. 2015 세계평생학습포럼 참가

6월 18일-19일, 2일간 경기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시흥시는 '평생학습, 지속가능한 실천전략(Lifelong Learning, Sustainable and Practical Strategy)'이라는 주제 아래 국제평생학습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국내외 6개 대륙(유럽, 중국, 미국, 호주, 부르키나 파소, 온두라스)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 석학, 활동가들이 모여 평생학습 실천동향 및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평생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소통하였다. 김기석 대표는 아프리카 세션 좌장으로 "부르키나 파소 소외 여성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자립"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아프리카 세션에서 발표 중인 김기석 대표

각 대륙의 발표 세션이 끝나고 세션별 토론에 대한 종합정리 및 질의 시간이 이어져 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오고 갔다.

행사에는 이성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윤식 시흥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환영사가 이어지고 최운실 아주대 교수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기조강연으로는 라울 발데스 유네스코평생학습연구소 국제학습도시담당관이 함께 하며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세계평생학습포럼

종합토론 세션에 참여한 김기석 대표

4. 2015 여성 할례 근절 국제 컨퍼런스 참가

9월 3일, 영국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Nottingham Trent University)의 노팅엄 컨퍼런스 센터(Nottingham Conference Centre)에서 열린 여성 할례 근절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Ending Female Genital Mutilation(FGM) Together'에 김기석 대표와 강신애 간사가 참가했다. 본 행사는 여성 할례 근절 운동에 힘쓰고 있는 모자투 재단(Mojatu Foundation)의 주최로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와 노팅엄 시의회, 노팅엄 경찰, 영국 보건성(National Health Service)등 각 영국 지자체 기관들과 다양한 국제 기구들의 협력으로 개최되었다.

'2015 여성 할례 근절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한 김기석 대표와 강신애 간사

모모 박사(Dr. Comfort Momoh MBE, UK FGM National Coordinator)와 피비 박사(Dr. Phoebe Abe, GP and FGM Specialist)의 기조 연설로 본격적인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었고, 여성 할례의 명확한 정의와 여성 할례에 희생된 생존자(survivor)들을 위한 세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과 보호에 대한 주제로 컨퍼런스의 막이 올랐다.

여성 할례(Female circumcision)는 여성 성기 절단(Female Genital Cutting, FCG) 혹은 여성 성기 훼손(Female Genital Mutilation, FGM)이라고 명명되기도 하며 여성 성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잘라내는 시술을 말한다. 아프리카 북, 중부 및 동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시술되는 전통적인 시술로서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보통 전문 의료인이 아닌 마을의 무속인들이나 비전문가들이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할례 시술을 하며, 시술 직후 및 장기적으로 출혈, 감염 등의 위험을 수반하며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렵게 된다. 할례로 인해 사망까지 초래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며 최근 소녀들의 건강 및 생존 문제로 여겨지며 전 세계

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여성 할례 근절 운동의 생존자들에 대한 일차적 지원을 넘어 사회의 각 분야별 파트너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의 워크숍이 진행이 되었다.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 '훈련, 교육 및 연구', '종교', '언어, 문화, 예술', '미디어', '법' 섹터가 참여했다. 특히 워크숍 진행에 앞서 각 섹터 별 대표 연설에서 교육과 훈련분야에 부르키나 파소 전 문해교육부 장관인 쿰바 볼리(Koumba Boly) 박사가 참여하여 여성 할례 근절 방안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연구를 근거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 정책적 협의에 신중히 포함시켜야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여성 할례의 발생 이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의 역할 강조와 더불어 부르키나 파소의 성과를 예로 들며 설명하였다. 쿰바 볼리 박사는 앞서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GAPA 프로젝트에 협력한 바 있다.

김기석 대표와 모하메드 사히
(Mohammed Saghi) 노팅엄 시의원

김기석 대표와 재키 모리스(Jackie Morris)
노팅엄 시장(중앙), 쿰바 볼리 박사(우)

교육의 중요한 역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관점, 남성의 역할, 대중 참여 의식 고취를 목표로 한 캠페인을 이용한 미디어의 역할, 그리고 법적 사례 등이 논의 되었는데, 이때 이루어진 훈련, 교육 및 연구 부문의 워크숍 세션에서는 김기석 대표가 GAPA 사업을 소개했다. 농촌 극빈 문맹 여성의 자립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 GAPA 사업은 문해교육, 직업기술교육 그리고 소액대출을 연계한 통합적인 교육지원사업 사례로 발표하였다. GAPA 사업은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세종문해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또한 이번 컨퍼런스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 성과를 인정받아 그 사례를 여성 할례 근절 운동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논의 되었다.

.

훈련, 교육 및 연구 부문의 워크숍 세션에서 발표중인 김기석 대표

컨퍼런스 중간에 마련된 여성 할례 생존자 발표에서는 에티오피아 출신인 하나 지브레메덴(Hana Gibremedhen)과 케냐 마사이족의 발렌티 은코요가 고통스러웠던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실제 경험담을 직접 컨퍼런스 참가자들과 나누고 여성 할례의 현실과 심각성을 알렸다. 현장에서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던 대부분의 청중들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볼리 박사는 모든 정통성과 문화는 나름의 가치를 지니기 마련인데, 여성 할례라는 관습에서는 그러한 가치를 전혀 찾아 볼 수 없을뿐더러 그 행위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인권 유린 그리고 가혹한 폭력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므로 더 이상 종교적 이유나 문화적 타당성의 이유로 거론되거나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 주장했다.

여성 할례 근절 방안에 대해 여성 할례 생존자와 논의중인 김기석 대표

과거 여성 할례(FGM)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소수 몇 개국에 국한된 문제였으나, 오늘날 급격히 늘어난 이주민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잠정적 할례 희생자들이 한국으로 난민신청을 해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는바, 본 컨퍼런스를 통하여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여성 할례(FGM) 근절 운동에 적극 참여키로 약속하였다.

.

5. '제 1회 과학기술혁신과 개발 국제 컨퍼런스' 참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한 제 1회 과학기술혁신과 개발 국제 컨퍼런스가 '공동번영을 위한 혁신(Innovations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9월 9~10일 양일간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소장의 환영사와, 박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밀턴 알시데스 마가냐 에레라(Milton Alcides Magana Herrera)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관 대사, 엠마 프랑수와즈 이숨빙가보(Emma Francoise Isumbingabo) 주한 르완다 대사관 대사의 축사로 막을 열었다.

환영사를 전하는 조이스 음수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소장

크리스퍼스 키암바(Crispus Kiamba) 나이로비 대학교 교수 및 전 케냐 교육과학기술부 사무차관이 '공동번영을 위한 혁신(Innovations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키암바 차관은 "혁신은 개발도상국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혁신이 선진국의 경제 번영 차원에서만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공동번영을 위한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이 행사에 함께 참석하여 부르키나 파소에서 진행 중인 GAPA(Global Alliance for Poverty Alleviation) 사업을 모델로 '기능적 문해능력, 기술력 개발 및 소액대출의 통합이 빈곤완화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사례발표를 했다.

사례발표 중인 김기석 대표와 박수정 팀장

이후 발표자 토론세션에서는 토론자들이 "10년 이상의 장기적 사업으로 GAPA 사업의 통합적 모델을 유지했을 때의 결과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히 교육으로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GAPA 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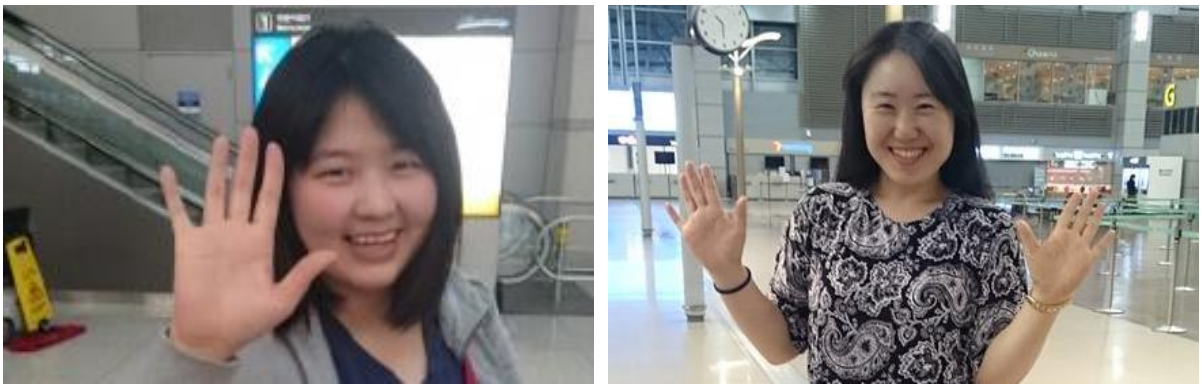
발표 이후 토론 세션 참가

이번 컨퍼런스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공동번영을 위한 혁신에 관련한 이슈를 토론하고, 개발도상국의 국가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사례 공유와 이의 바람직한 모델과 지원방안 모색이 이루어진 시간이었다.

6. 부르키나 파소 간사 파견

2015년 2월 25일 신주용 간사가 부르키나 파소로 떠났다. 출국 전 국경없는 교육가회 식구들과의 마지막 저녁식사 자리에서 신주용 간사는 "국경없는 교육가회에 속한 것이 감사하고, 지리적으로만 떨어져있을 뿐 정기적으로 계속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 년 동안 정말 '나만 정말 잘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부족함을 채우고, 부르키나 파소에 가면 아이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존중 받았던 것처럼 그곳 현지인들에게도 존중 받고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2015년 6월 12일 백광순 간사가 걱정 반 설렘 반,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키나 파소로 떠났다. 백광순 간사는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을 기대하며 빈곤퇴치를 위하여, 아프리카를 위하여 열심히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밝게 인사를 건네는 신주용 간사(좌)와 백광순 간사(우)

부르키나 파소에서의 첫 발을 내디딘 두 간사를 응원하며 일 년간 부르키나 파소에서의 활동과 소식을 기대해본다. 간사들의 활동 소식은 국경없는 교육가회 공식 홈페이지(http://www.ewb.or.kr/#!/c1py3)를 통해 매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7. EWB 간사 가나안 농군학교 체험

유희숙 간사와 김연지 간사는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원주가나안농군학교 단기(의식개혁)과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수료하였다. 2박 3일간 진행된 교육기간 동안 가나안 교육을 통해 가나안 개척의 역사와 개척정신을 배우며 앞으로의 삶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의미를 실현하며 살아가기 위한 굳은 다짐을 했다. 유익한 강의와 농장체험을 통해 '땀을 적게 흘리면 눈물을 많이 흘리고 땀을 많이 흘리면 눈물을 적게 흘린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2박 3일간의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개인 체험 후기]

감사하는 삶

유희숙 간사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함께 한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가나안농군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해보는 단체생활에 대한 기대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시작되면서 그 동안 제가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교육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도 교육을 통해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범일 교장선생님의 효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부모님 생각에 잠시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매 강의가 유익했지만 저에게는 농장체험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역시 몸을 움직이니 신나고 땀이 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썼던 감사노트가 생각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끝마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구성원이 되어 이렇게 가나안농군학교까지 오게 된 것도 감사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감사한 것들을 적어나가며 정말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구보를 하며 외쳤던 개척을 오늘도 외치며 꿈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김연지 간사

'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조국을 위하여 개척의 삶을 사셨던 일가 김용기 선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진행된 2박 3일을 통해 얻은 깨달음입니다.

단기(의식개혁)과정 동안 수도 없이 교육구호를 외쳤습니다. 알도록 배우자, 몸 바쳐 일하자, 겸손히 섬기자, 먹기 위하여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하여 먹자, 등을 가나안의 교육구호들을 하루를 시작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하루를 끝마칠 때나 항상 복창해야 했습니다. 처음 교육구호를

복창했을 때, 지금 나에겐 필요 없는 구시대적인 구호라고 생각했지만, 가나안 농군학교에서의 하루가 지나고,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촘촘하게 짜인 일정을 따르며 어느 샌가 처음의 제 생각은 변해있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육이념과 교훈인 '근로, 봉사, 희생', '알도록 배우자, 몸 바쳐 일하자, 겸손히 섬기자', 그 밖의 교육구호들은 개척자 김용기 선생님께서 조국을 위하여 애쓰시던 그 시대에만 필요했던 정신이 아닌, 오히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신이며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박 3일의 시간 동안 외쳤던 구호들은 마음속에 담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단체사진

8. 부르키나 파소 일가가나안회관(ICC) 건립 모금 마라톤 완주

박수정 팀장이 부르키나 파소 일가가나안회관(Ilga Canaan Center; ICC) 건립 기금 모금을 위해 42.195km 풀코스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였다. 지난 3월 15일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개최된 서울국제마라톤(동아 마라톤)이다. 지난 2014년에도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통해 건립 기금으로 400여만원을 모금하였으며, 이번 년도에는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친 직후 완주하는 열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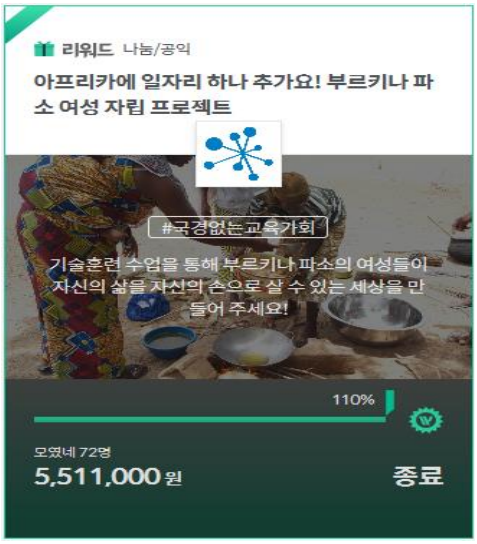
열심히 달리고 있는 박수정 팀장

9. 부르키나 파소 여성 자립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목표 달성

2015년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오픈한 부르키나 파소 여성 자립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아프리카에 일자리 하나 추가요~ 부르키나 파소 여성 자립 프로젝트'가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목표액 110%를 달성했다. 10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된 펀딩 기간동안 모금된 금액은 당초 목표액인 5,000,000원을 넘긴 5,511,000원으로, 이 금액은 부르키나 파소의 문맹 극빈 농촌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술훈련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제반 비용에 쓰인다.

펀딩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편지와 함께 부르키나 파소의 수제 비누, 염색 천, 공예품, 의상이 리워드 상품으로 전달되었고, 리워드 상품 구입 후 남은 금액은 2016년 기술훈련 수업의 재료비, 강사료 등에 사용된다.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크라우드펀딩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키나 파소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목표 달성

펀딩 참여자를 위한 리워드 상품을 직접 고르는
부르키나 파소 파견 간사들

Ⅳ. 2015 년 정산 세입 세출 보고

1. 2015 년 결산 보고

단위: 원

2015 년 수입	2015 년 지출	당기수익
390,797,250	352,603,987	38,193,263

2. 2015 년 수입 결산

단위: 원

과목				비고
관	항	목	금액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156,564,422	
후원금	정기후원금		38,085,180	
	부정기후원금		43,927,692	
	소계		**82,012,872**	
사업수입	사업수입	GAPA	79,934,953	
		광명시-BF 평생학습관	60,014,650	
		UNDP	53,428,078	
		세네갈 교육사업	31,038,476	
		에티오피아 사업	17,002,770	
		ICC 건립기금 모금	3,800,000	
		교사연수	500,000	
		청년인턴	37,606,720	
		청년캠프	10,970,500	
	소계		**294,296,147**	
잡수입	이자수입	이자	135,659	
	기타수입	기타	14,352,572	
	소계		**14,488,231**	
합계			**390,797,250**	

3. 2015 년 지출 결산

단위: 원

과목				비고
관	항	목	금액	
협력사업	사업활동비	GAPA	93,334,200	
		광명시-BF 평생학습관	47,134,140	
		UNDP	20,980,100	
		세네갈 교육사업	32,626,769	
		에티오피아 사업	18,448,098	
		ICC 건립기금 모금	834,667	
		청년인턴	28,818,760	
		청년캠프	9,526,900	
	소계		**251,703,634**	
경영기획	법인운영비	인건비	43,866,400	
		사무국운영비	34,190,417	
		세금	266,000	
		기타	22,577,536	
	소계		**100,900,353**	
합계			**352,603,987**	

v. EWB 소개 및 후원 안내

국경없는 교육가회 (Educators Without Borders, EWB)

(사) 국경없는 교육가회(EWB)는 한국의 교육자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기구입니다. 이에 EWB는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사회의 개도국 교육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도국 교육개발 프로젝트
- 국제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연구
- 국제교육개발협력의 후속세대 양성

후원 및 후원 문의

1. 후원계좌
   농협) 079-01-473722 / 국민) 371101-04-038375 국경없는 교육가회
2. 회원가입 및 문의: http://www.ewb.or.kr / ewb@ewb.or.kr
3. 후원물품 기부 및 문의: 02-885-6422 / ewb@ewb.or.kr

후원 및 기부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I. EWB 소개 및 후원 안내

(만민교육 1,000 만원 이상, 빈곤퇴치 100 만원 이상, 문맹퇴치 1,000 원 이상)

- **만민교육 후원자**

  다비육종(윤희진), 정진화, 김기석

- **빈곤퇴치 후원자**

  김진환(학지사), 손영우, 김주훈, 류방란, 이무헌, 박수정, 림영철

- **문맹퇴치**

  강선미, 고소향, 고형은, 구신영, 김경일, 김명진, 김성수, 김성열, 김어진, 김연갑, 김윤호, 김주선, 김준엽, 김지자, 김진이, 김찬란, 김태석, 김태윤, 김현숙, 남영선, 문삼은, 박근아, 박범진, 박선무, 박에스더, 박태훈, 박환보, 배정현, 손상진, 쉘위베이크(이미화, 조택자), 신봉철, 신선미, 신정철, 안상길, 양길석, 양병표, 양은성, 양희준, 여영기, 오은빈, 우병열, 이광수, 이기정, 이선정, 이윤복, 이재열, 이재찬, 이정숙, 이정아, 이종복, 이차권, 이칭찬, 이태주, 이한별, 이향규, 이현정, 이호영, 장봉훈, 장용훈, 전종갑, 정미란, 정복희, 정운찬, 정재환, 조상식, 조정아, 주현일, 차승주, 최광혜, 최채기, 허병부, 홍문숙

(사)국경없는 교육가회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WB
Educators Without Borders